



하 영 제 산림청장

숲 가꾸기가 온난화 막는 길이다

온난화가 지구촌의 핵심 어젠다가 됐다. 온난화는 지역 차원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지방정부 단위에서 총 에너지량의 75%가 소비되고, 온실가스의 80%가 방출된다고 한다. 세계지방자치환경연합(ICLEI)이 기후변화 캠페인을 여는 것은 그 연유에서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산림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산림은 탄소흡수원(Carbon Sink)이자 동시에 배출원(Carbon Source)이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에 의해 선진국들은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분을 산림에서의 흡수량으로 상쇄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5%로 할당받았을 경우 산림분야에서 2%를 흡수한다면 나머지 3%만 감축시켜도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웃 일본은 제1차 공약기간중 국가 감축할당량 6%중 3.9%를 산림을 통해 감축하기로 한 바 있으며, 캐나다는 7.3%, 러시아는 4%를 인정받았다.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대에
숲가꾸기 산물을
연료로 한 바이오에너지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저탄소사회 건설에
기여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지혜를 짜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산림의 순 탄소흡수량은 3700만 이산화탄소이다. 이는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 5억9100만의 6.2%에 해당한다. 우리는 국토면적 대비 65%가 산림이고 그중 70%가 사유림이다. 따라서 산림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탄소흡수원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대규모 신규 조림지는 아니더라도 부실초지와 한계농지, 그밖에 소규모 자투리땅이라도 찾아 나무를 심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지역에 도시숲·마을숲·학교숲을 조성한다면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도 하고, 도시온도를 낮추는 효과(Cool Community Program)도 기대할 수 있다.

목재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사용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대에 숲가꾸기 산물을 연료로 한 바이오에너지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저탄소사회 건설에 기여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바이오에너지 시범타운을 조성하고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외조림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계적 환경운동가인 레스터 브라운(Lester Brown)은 대한민국의 과거 험벗었던 황폐산지를 완전히 녹화한 사례를 기적이라고 평한 바 있다.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지혜를 짜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중심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산림**